

이코노 & 비즈 피플

최종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고용효과 큰 국내외 기업 집중 유치”

“부족한 산업단지를 조기에 개발하면서 국내외 투자 유치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22일 취임한 최종만(5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어떻게 광양항 활성화를 이끌어내 지역 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울촌 2산단 등 제 때 조성
부족한 산단부지 조기 공급
광양항 활성화에 최선

근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한 울촌 2산단의 적기 개발과 해룡산단 2단계, 세풍일반산단, 하동 갈사만 조선산단, 대송산단 등의 조성에도 힘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신대·화양 지구에 교육·주거·의료·레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단지를 조성해 외국 교육기관·병원 등 서비스산업을 유치하는데 힘쓰겠다는 각오다.

최 청장은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까지 1단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라며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과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센슈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한 뒤 광주 동구청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혜기자 dok2000@kwangju.co.kr

최 청장은 “광양만은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석유화학산업단지, 국제 규모의 광양항 등 타 경제구역에 비해 월등한 자산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고용 효과가 큰 기업과 컨테이너 화물을 창출, 광양항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레아 광양만권 경제가 살아나고 남중해안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현재 포화 상태에 달한 울촌 1산단 외 부족한 산단 부지의 조속한 개발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당면 과제다.

그는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산단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



금호타이어가 “오는 25일까지는 노사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노조에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22일 오후 회사 관계자들이 노조가 설치한 천막들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5일까지 타결 안되면 정리해고”

금호타이어, 노조측에 최후 통첩

금호타이어가 “오는 25일까지는 노사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노조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22일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채권 유예 제한(4월5일)이 점점 다가와 채권단에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25일까지 노사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계획대로 정리해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

해고를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25일이 마지막 노선이다”고 덧붙였다.

채권단도 “동의를 제출이 늦어질수록 회사 가치는 떨어지고, 그만큼 자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며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도 불가피하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3일 오전 교섭위원회 회

의를 거쳐 노조 협상안 제시 등 향후 협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재료 부족으로 광주1공장과 곡성1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된 금호타이어는 이번 주말에 광주지법의 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31일 채권단의 양해각서(MOU) 1차 체결 시한, 다음달 1일 민주노총 총파업, 2일 정리해고 예정일 등이 속속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노사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자유구역청 4797억 투자 유치

SPP그룹 등 7개사와 협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SPP그룹, ㈜에코원, ㈜고려리사이클, ㈜태웅, ㈜달성, ㈜디엠티, ㈜기성 등 7개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울촌산단 입주를 위한 총 4천 79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총 3천162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기대되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1만1천 TEU가 창출되고 연간 매출액이 2조1천2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SPP그룹은 울촌산단 26만5천㎡부지에 2천550억원을 들여 원자력발전 플랜트와 해수담수화 플랜트, 배어링 등을 생산한다.

㈜에코원은 울촌산단 11만1천㎡에 1천 805억원을 투자해 특수차량 및 방탄유리를 제작하고 ㈜고려리사이클은 221억원을 들여 자동차브레이크 잠금장치와 반도체 압력 센서 공장을 건립한다.

또 100억원을 투자하는 ㈜태웅은 공업용 용제와 반도체 표면처리 용제 생산시설을,

㈜달성은 86억원을 들여 컨베이어장치 제조 설비를, ㈜디엠티와 ㈜기성은 각각 10억원과 25억원을 들여 신축이음판 설비공장을 설립한다.

특히 SPP그룹은 이미 울촌산단에 풍력·태양광발전 설비제작을 위해 3천570억원을, 발전설비 및 석유화학플랜트와 요트 등 레저모터 생산에 4천5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하고 공장을 건축 중이며 예상 고용 규모만 4천여 명에 달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률 급증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 쌓이는 포인트를 묵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액 포인트는 2004년 852억원에서 2007년 1천 515억원, 2008년 1천359억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810억원으로 줄었다.

실제 광주은행에서도 비자카드 포인트 사용률이 2007년 29.4%에 불과했으나, 2008년 56%, 2009년 63.5%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었고 기프트카드 교환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포인트 기부 등 활용방식도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작년 말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5천270억원으로 2008년 말에 비해 244억원 늘었다. 지난해 1조2천 593억 원의 포인트가 새로 적립됐고 1조1천539억 원이 물품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용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불꽃박람회 가면
금호타이어 싸게 산다

금호타이어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감매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불꽃박람회’에서 할인 판매 행사를 갖는다. 금호타이어는 행사 기간 동안 타이어를 공장도 가격보다 5% 저렴하게 판매하고, 무료 장착·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It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person on a horse and text promoting the quality and variety of hearing aid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is provided at the bottom.

Advertisement for '곡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Gokrakjeon Namgol-dang is here). It promotes a traditional Korean festival and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such as th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inquiries.

Advertisement for '지티 주식회사' (Giti Co., Ltd.). It features imag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promotes the company's products and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for regional branches is listed at the bottom.